

## 21세기 脫近代地平에서의 學問

孔 星 鎮

(漢陽大 行政大學院)

## 1. 들어가며

어떤 조직—개인·사회·국가를 망라할 때—이든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진로를 알고 있다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없게 마련이다. 더구나 그 과정에 놓인 장애물과 이의 극복 방안을 알 수 있다면 잘 아는 경기에서 이길 수 있듯이 성공의 확률은 높게 되는 것이다.

물론 완벽한 전망이란 우주의 질서에 대한 확철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대비는 어쩌면 성공적인 미래로 향하는 문의 열쇠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글을 통한 나의 논의가 첫째로 지금까지의 近代학문의 틀을 이해할 수 있으며, 둘째로 개인과 사회 혹은 국가와 같은 조직이 향후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셋째로 미래에 대해 세웠던 학문적 가정들을 검토·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내일에 대한 이정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나의 논의에 대한 즉각적인 합의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논의의 성격상 시기적으로 단기적이거나 구조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사회나 그 체제가 급변하고 있거나 새롭고 강한 세력—에컨대 언론 등 정보를 취급하는 특정 부문—이 통제하게 될 때는 論者들의 합치된 견해는 오히려 방향성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의 일탈자적 자극제가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일관된 견해에서 벗어난 관점이 제기됨으로써 공동체적 흐름의 단절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참신하고 보다 나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이야기한다. 이미 知識 및 情報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이는 사회의 결정적인 요소가 과거처럼 교통수단이 아니라 통신기술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통해 재화, 서비스 등을 이 동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진행중임은 미래학자들의 예견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미 목도중이다.

그 결과 우리는 각자의 생활방식과 사고영역은 물론 정치·경제·사회체제 일반의 의미까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에컨대 인공지능(artificial-intelligence), 재택근무제(home office), 통신 민주주의(teledemocracy),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등의 과학기술적 섹체가 물센 풍기는 새로운 21세기적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미 낯설지 않음을 확인해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21세기 지식 및 정보사회'라는 新地(新地)는 시간·지식·정보가 관건적 요소가 될 것이며,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종전의 학문적 규정은 더 이상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과학기술 부문의 강조가 초래할 근대학문의 파행성을 우려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환경의 파괴나 핵무기를 앞세운 인종과 민족 간의 분규, 지구자원의 고갈 등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근대학문의 예기치 못한 결과로서 이의 수정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자연합일론, 우주균형론, 상호주의, 인간공동체론 등의 새로운 개념들은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脫近代人의 의식을 접하게 될 사상적 지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쨌든 새로운 인간정신의 응용만이 탈근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혁명적 형태의 학문—여기서는 脫近代的 학문이라 부르고자 한다—과 이를 통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에서 나는 과학기술의 강조라는 현상적 변화를 본류로 여기는 근대학문의 연장선으로서의 21세기보다는 근원적인 전환의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일탈자적 자세를 견지한 채 21세기 탈근대사회의 도래와 그에 걸맞은 학문적 지평을 조망하고자 한다.

## 2. 近代人(Modern Man)은 누구인가

근대성(modernity)이란 한마디로 인간의 '홀로서기'를 권장하는 주체성의 확립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혹은 윤리적 생활세계(life-world)에서까지도 인간 스스로가 측정의 바탕과 기준이 되어왔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대성은 서구의 기독교적 유일체계가 우리의 오랜 전통으로부터 불가분해될 수 있다는 면에서 자유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오기도 하였다.

이는 진리가 더 이상 신의 체현(revelation)이

나 도덕체계에 종속됨이 없이 인간 자신의 知覺과 反映을 바탕으로 추구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현대에 있어 인간적 삶이란 神性이나 전통과는 전혀 다른 지평의 세계, 예컨대 지각이나 감성, 독단 그리고 추론 등의 복합적 구성체인 인식주체의 발견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이 근대성에 바탕을 둔 학문이 객관성과 전혀 배척되는 주관성의 강조에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홀로서기의 보편성은 필연적으로 객관주의의 확대와 연계되어 있으며 진리의 始原으로서의 자아, 그리고 감성이나 욕구, 그리고 독단이 바탕이 되는 정치나 윤리세계의 인정 그 자체는 학문의 발전에 부응하는 필요인자이며 자연세계나 역사적 존재에 관한 객관적 범주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주체나 그 역이 성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대인은 궁극적으로 홀로 설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가 객관주의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근대인은 主客의 二元的 구조의 일방으로 스스로를 인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주체적 면모를 강조하는 20세기적 인식체계, 즉 르네상스 이후에서 비롯된 근대학문의 지평은 인간에 대한 데카르트의 혁명적 재해석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에서 엿볼 수 있는 自意識의 발견에서 근대학문은 도그마로 치닫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에 찬 命題는 자의식에 의해 모든 것이 측정 가능하고 합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신의 존재와 같은 초월의 영역이나 만유론적 원리 등은 인식 주체인 인간 속에 內在하는 것에 불과해진다.

이후부터는 事象이란 단지 인간에 의해 지각되고 사유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만 존재하게 된다. 인간다움(humanness)이란 더 이상 공동체적 삶을 통해 나타나는 호혜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식 그 자체이며, 피조물이나 자연의 일부분이 아닌 절대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시킬 수 있는 우뚝 홀로 선 존재이다. 따라서 20세기 지평 위의 나는 스스로가 본질이며 목적이기 때문에 법규의 제정은 물론 모든 현상

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결과적으로 근대학문은 이런 토양 위에 정치나 사회제도를 고안·구축함으로써 미지의 세계를 헤방시키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처럼 데카르트적 인간 제조명은 기존의 학문세계와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과제들을 던져주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 내가 이해하는 근대적 학문의 요체는 이 과업의 완성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데카르트만이 근대학문을 좌중시킨 유일한 위대한 哲人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인간과 자연의 궁극적 본질에 관한 탐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철학적 과제였다. 단지 데카르트적 시각의 독특성이 지금까지의 지성사에서 확연한 족적이 될 수 있었음을 강조할 뿐 그 외에도 루터나 갈릴레오 그리고 루소 등이 어떤 형태로든 확실성(certainty)이란 도그마의 맥락에서 데카르트의 先人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루터는 신앙적 확신을, 갈릴레오는 수학적 확신을, 그리고 루소는 자유사상의 시조로서 정치학의 성립은 물론 실천적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글에서 근대학문의 시원과 요체를 논함에 있어 데카르트의 중요성을 양각시키고 있는 것은 그의 사상이 위의 세 사람과는 달리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식과 그 추구대상 간의 관계를 존재론적으로 규명하였으며 그 결과 학문의 주체인 인간의 홀로서기, 즉 주체와 자유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과 체계를 구축시킨 근대사상의 일탈자인 것이다.

물론 인간의 홀로서기가 오늘날 만연되어 혼동하기 쉬운 個人主義는 결코 아니다. 인식주체의 확립이 개인주의가 아님은 인간의 홀로서기가 ‘나’에 속한 만큼 ‘우리’에게도 속하고 있음을 통찰할 때 판별되어질 수 있다. 즉, 근대학문은 인간을 국가나 신앙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끔 새로운 지평에서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였으나, 그 새 지평 자체가 홀로서기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근대학문은 개인적 홀로서기에 대칭되는 反命題로서 집단적 홀로서기를 동시에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인

간만이 유일하게 나와 우리 사이의 선택 속에서 공동체적 삶과 단순한 계층구조적 삶, 그리고 경제행위적 존재와 시인적 도덕체 사이를 방황하는 존재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 3. 近代學問의 彷徨性

‘홀로서기를 통한 자유에의 귀의’를 요체로 하는 근대학문은 결과적으로 인간을 본질이자 목적으로 변모시켰다. 자연과 공동체를 초극한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연으로부터 유리되었으며 세계는 한때 동일체였던 인간에게 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근대인은 더 이상 그의 지평에서 안락한 고향의 체취를 느끼지 못하며 정치·윤리적 삶의 동기를 발견할 수 없게 되었고, 다만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며 자신을 시험하는 모습만을 발견할 뿐이다.

이러한 불확실하고 소외된 세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근대학문은 자연세계에의 귀의나 공동체 건설이라는 방법보다는 대상을 정복하고 객관화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홀로서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선택으로 더욱 탈각되어 왔다.

물론 자연에 대한 극복은 일견 과학주의적 학문에 의해 가능한 듯이 보일 수도 있다. 데카르트의 표현을 빌면 ‘나는 내 자신은 물론 세계를 자각하는 존재이며 생각을 생각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학문의 주체인 나를 구성하는 본체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임과 동시에 세계존재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과학주의적 근대학문의 추구는 세계와 인간의 모습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내 자신의 홀로서기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자연과 세계라는 대상을 나에게 귀속시키는 작업을 통해 근대인은 세계를 그의 이미지에 맞게 조감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성주의, 계몽주의, 인본주의, 실증주의 등의 知的 분류는 단지 이러한 조감도의 종류에 지나지 않으나 20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확신과 예측을 가능케해 줌으로써 더욱 홀로서기를 정당화시켜 주었다.

물론 실제 세계에의 조감은 이러한 조감도만

을 축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코 인간의지(human will)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인간의지란 자연을 인간의 사용 대상으로 전이시킨 근대학문적 접근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한다. 과학을 필두로 정비된 인간의지는 자연세계를 실천적(praxical)으로 전이·조작시킴으로써 인간에게 근대적 진리의 축을 제공하고, 이러한 결과는 그에게 확신과 안정을 제공하게 되어 홀로서기라는 근대학문의 志向을 보다 보편화시키게 된다.

이처럼 인간이 확고한 인식의 주체로 변모해 갈수록 과학주의나 의지의 가미는 근대학문의 모형(ideal-type)이 되어 기타의 가능성들을 차례로 제어하게 된다. 이후부터는 이 패러다임 속의 행위만이 인간다운 것이 된다는 도그마가 착종될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적 패러다임의 착근이 우리를 소외와 불안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학문의 길이란 본질적으로 무한할 뿐 아니라 투쟁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의 투쟁은 마키아벨리류의 학문이 지적하는 정치적 야심의 결과이거나 홉스류의 자기보존 욕구와는 다르다. 오히려 인간과 세계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이를 현실로 구현코자 하는 탈근대성(post-modernity)의 학문적 수용을 의미한다.

살펴보았듯이 근대학문이 배출한 인간은 홀로서는 존재이고 과학과 강한 의지를 그 저변의 기초로서 장악할 때 비로소 홀로 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나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므로 각자에게 부과된 자유나 홀로서기는 그의 능력과 밀접한 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바로 상호경쟁을 유발시키며, 그 결과 상호경쟁적인 홀로서기는 자유와 인성에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유아독존적 학문주체는 단순히 자연세계를 대상화시킨다고 해서 불안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 상호관계는 불만과 좌절을 일반화시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예컨대 내 스스로가 대상이 되면서 학문적 객관화의 과정으로 전이케 되어 人性과 함께 자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문주체의

당위성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이가 근대학문에 비판없이 몰입한다면 인간은 때로는 주체로서, 때로는 대상으로서의 동시역할이 주어지므로 결국은 다른 자연의 존재처럼 학문의 탐구자료로 퇴락하고 만다. 지구를 정복하여 소모하는 것과 같은 자연의 객관화 현상은 결국 서로를 탐닉하는 여러 인간의지의 난투이므로 근대인은 상대방의 항복을 증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과 평화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근대학문이 간과한 인간의 상호 객관화 현상은 모든 삶터(life-world)에 만연하게 되는데, 특히 정치영역에서는 오늘날 목격되듯 정복과 통치를 가능케 하는 기계론적 정치구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며 경제조직에 있어서도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서만 여기게 되어 인간과 기계적 체제가 어우러진 근대적 경제조직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이러한 근대인의 만연은 예외없이 모든 영역에서의 전통과 신화를 한낱 부질없는 제도로 괴멸시켰으며, 그전까지는 약간의 외경심이라도 주었던 기존의 전통과 제도는 근대학문의 초점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매우 역설적이지만 근대학문이 추구해온 자유에의 욕구가 오히려 만유론적 노예성을 대두시키고 인간성의 추구가 오히려 物化(reification)로 탈바꿈하였음을 목격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진한 근대학문의 파행성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타당하다면 인간을 인식의 주체로 출발하는 근대학문적 지평에서는 더 이상의 자유와 도덕은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지하듯이 홀로서기를 통해 쟁취되었던 인권과 자연권은 궁극적으로 그 홀로서기 자체를 통해 좌절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근대학문은 개인과 집단, 정당이나 계층, 국가나 민족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일반의지(general-will)와 함께 역설적으로 종속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학문을 통해 홀로서고자 하는 우리는 비록 전통적 권위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보다 더한 족쇄로 압살되고 있으므로 결국 근대학문의 추구는 권력에의 의지만을 추구하는 전체주의,

의지에의 의지만을 추구하는 허무주의, 그리고 과학기술에의 예찬만을 남기게 되어 참된 공동체의 구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4. 脫근대학문의 志向

이상에서 우리는 근대성을 토대로 구축된 학문세계가 얼마나 본질적 추구, 즉 자유에의 귀의로부터 탈락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대를 지향하는 우리의 학문세계는 中心을 향하여 몸통을 들이밀고 있으며 획일적 이성세계에 비판없이 흡수·몰입되고 있음을 본다. 또한 이러한 지평 속의 조그마한 성취를 마치 우주질서의 이해인 양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모한 번론을 다 하여도 마치 넓은 허공에 하나의 털을 둔 것과 같고,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큰 바다에 물 한방울 던지는 것과 같음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脫近代的 학문세계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한 이해를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인간의지에의 우월감을 벗겨내려야 한다.

위에서 우리는 근대학문의 파행이 자유라는 본체는 멀리한 채 권력에의 의지만을 추구하는 전체주의로 탈색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니체가 지적하듯 근대학문에서는 主와 客의 구분이 용해되어버리고 말았다. 권력에의 의지는 모든 것의 대상화가 가능케 되어 의지도 의지 자체의 종속물로 전락케 되며 그 궁극적 목표는 자연과 인간을 복속시키는 권력에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권력은 의지에의 의지를 보전하는 목표만을 갖게 됨으로써 결국 권력에의 의지는 의지에의 의지라는 함의적 등식이 성립케 된다.

따라서 권력에의 의지나 의지에의 의지는 수단일 뿐 결코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기에 근대학문이 허무주의로 귀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한 전지전능한 과학기술의 모태로서 그 위치를 공고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허무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탈근대학문은 인간의 지의 강조를 배격함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신격화를 피해야 한다.

단순한 의지작용으로서의 권력에의 의지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정의 착취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事象을 대상으로서뿐 아니라 착취기구로서 파악하고 모든 인식주체와 자유를 과학기술 속에 내재해 있는 의지의 탐욕에 복속시킴으로써 파생된다. 하지만 21세기의 탈근대인은 토플러가 예견하듯이 생산과 소비의 거대한 대칭구조 속에 일방적 매개체로 조직화되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지구에 대한 인식도 성장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과학기술에 의해 탐닉되는 에너지와 원료의 단순한 저장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라는 생명체의 일환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에 역행하여 여전히 과학기술의 절대화를 추구하는 학문 자체는 그 탐구대상인 인간과 자연을 무한정으로 착취하고 소비하는 총체적 역동체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다른 실천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정치나 경제도 이러한 과학기술의 불모나 부속물에 지나지 않게 되며, 결국은 자유를 추구하는 탈근대인은 기계조직이라는 만유론적 제국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새로운 학문지평에서 추구하게 된다.

셋째, 탈근대학문은 상대주의적 실체를 수용하게 된다. 우리는 착취와 복속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기계적 광란의 와중에서 소외받는 그러한 상태가 근대학문의 그르침에서 비롯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즉,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학문을 추구할수록 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나의 위치와 참된 인간다움이 왜소해짐을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와 세계는 그 위치가 전도되어 참된 위상과 이에 따른 정치와 윤리의 세계가 소멸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때 전통과 신화에 의한 공동체적 휴식처를 향유했던 인간들은 근대학문의 지평에서는 더 이상의 안식처를 발견할 수 없게 된다. 아니 기계적 인간으로서는 모든 곳이 쉼 곳이겠으나, 탈근대인의 시각으로는 이곳에서는 단지 머리없는 군상(headless-crowd)만이 발견될 뿐이다.

그러므로 탈근대학문은 인간의 소외와 부유에 대한 처방으로서 인간 존재에 대한 사려깊은 성찰과 숙고를 학문체계에 수용함으로써 근대학문의 강박성을 대체할 것이다. 즉, 모든 곳에서 안

식할 수 있다는 근대학문의 허구를 거부하고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주지하듯이 과학과 의지에 바탕을 둔 근대 학문도 역사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과학적 접근으로서의 역사는 과거 사건들의 객관화이지만, 역사가 객관화로 끝날 때 역사는 역사 자체로부터 그리고 한때는 역사 속에 위치를 점하고 일부였던 과거로부터 버림받는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는 역사 또한 권력과 기술발전의 순간적 필요성에 따라 창조·재창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평에서라면 역사는 인간에게 안식처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추구의 무기가 되어 인간소외와 불안의 원동력이 될 뿐이다.

이와 같이 역사는 무한정의 객관화와 착취를 추구하는 여러 권력의 투쟁을 단지 다원론적으로 그리고 상호모순성으로만 조명할 뿐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분개만을 잉태케 된다. 이상 기술한 근대학문적 역사관이 의미하는 것은 결코 역사의 폐기가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내재하는 상대주의적 실체의 인정을 함의하고 있다.

탈근대인은 역사에 대한 해석이 특정시각에 고착되어 이를 마치 현저한 진리인 것처럼 강제로 강요나 설득되어짐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지막으로 21세기적 학문지평이 일견 결정적 설명력을 갖춘 듯이 보이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있음도 함의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근대학문은 20세기 사조를 단순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객관화하여 착취·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치·사회조직의 필연성을 정당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근대의 혼란과 불안의 극복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학문은 확철한 처방을 제시하는 듯이 보인 것도 사실이다. 즉,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청사진을 가능케 하는 본원(substance)과 운명에 관해 전체주의적 설명을 시도하여 혼돈과 소요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미디어나 여론조작을 통하여 마치 특정 이데올로기가 규명하는 역사구조 내에서 사건들이 정당하게 해석될 수 있는 듯이 나타나기도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역사해석의 특정 패러다임 속에 가두어 버

림은 물론 매일의 일상성(everydayness)에서조차 권력과 기술발전의 순간적 욕구충족에만 매료될 수 있게 한다. 이런 상태라면 인간은 결코 자유롭거나 창조적인 정신세계를 향유할 수 없음은 물론 거대한 노예세계로 전락해버린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탈근대학문은 노예의 양산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 5. 21세기 학문의 實踐的 課題

이상에서 우리는 脫近代학문이 지향하여야 할 요체를 대략 살펴보았다. 이 지평에서는 탐욕과 권력의지로 화해버린 인간의지를 자연과의 순화로 대체시켜야 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열망이 자칫 신격화된 이데올로기로 형해화됨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절대진리의 추구라는 미명하에 인간을 일차원의 세계에서 신음하게끔 만든 근대성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적 실체의 존재를 허용할 수밖에 없음도 강조하였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21세기의 학문은 사랑과 열려진 마음, 그리고 같고 닮음을 내포하게 된다. 사랑이란 인간사회의 복잡다단한 관계성을 인식하는 토대 위에서 나타난다. 인간 상호간의 연계는 과학이란 처방 속에 타인을 오직 탐구와 관찰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일도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옹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명쾌한 설명보다는 상호 공존의 전제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열려진 마음 또한 근대인의 오류와 독단 속에 스스로의 족쇄를 차고 매물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경험을 토대로 끊임없이 반복추구(repetition)함으로써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자세인 것이다.

또한 탈근대학문이 같고 닮는 자세를 수용해야 함은 세상사의 광대무변함을 인정하는 토대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결코 학문주체의 총체적 환경을 도외시한 채 유아독존할 수 없다. 사통팔달의 상호의존적 세계의 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의 내일을 예단키 위해서는 흐름의 줄기(context)를 파악함과 아울러 간파하기 쉬운 주변세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동시에 요청되는 것이다.

학문의 역사는 혁명과 더불어 새로이 태동되

곤 했다. 神의 율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어서 낙원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원초적 죄악 때문에 이승에서의 고통을 달게 받았던 中世 1,500여 년의 세월. 하지만 신의 위탁을 받았다는 귀족영주와 교황청의 절대 권위를 받쳐주던 중세 학문을 휴지조각처럼 만들어 버린 루소의 혁명적 사상이 피로에 지친 혁명군의 가슴에 수그러들 줄 모르는 새벽의 불을 환환 지펴 대었다.

절대권위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인간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상호약정에 의한 法밖에 없다고 절타하던 루소의 근대성은 그후 인류사에 어떠한 실천적 과제를 안겨주었던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근대학문의 절정을 이루어낸 데카르트나 콩트, 그리고 헤겔에 이르기까지 그 파장의 정도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의 학문이 소개된 지 불과 30년 후에 미국 혁명이, 그리고 50년 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함으로써 세계는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공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어들게 된다.

한때는 무적함대를 앞세운 스페인이, 그리고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개발과 자본축적을 먼저 이룩한 영국이 세계를 향해 그들의 가치관을 보편화시키고자 했다. 소위 제국주의적 발상과 행동을 통해서 말이다. 하지만 스페인의 영화가 지속되기에는 그 민족성이 전략적이지 못했고 ‘유니온 잭’의 광휘가 무궁하기에는 신분과 계층의 위화가 지나쳐 사회적 유연성이 부족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루소에서 비롯된 근대학문의 이론적 지평을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가치관으로 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술보다는 전략을, 경직됨이 아니라 탄력을 두루 갖춘 근대공동체가 바로 금세기 최대의 강국 미국일 것이다.

이들은 神話를 거부한다. 즉, 신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것을 과학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점이다. 우주의 신비에 대한 두려움은 미항공우주국(NASA)이 풀어가고 있고 생명의 연장은 인공장기의 개발로 최소한 20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의 물결은 항상 머무르지 않고 굽이치고자 하며 우주자연은 神 이외의 어떤 절대자도 인정치 않는 법. 20세기 근대국가의 절정

이던 미국도 조락의 여명이 찾아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라는 근대학문의 실체가 몰락할 것이라는 세계사의 변화를 경고한 일군의 학자들이 있었으니 소위 포스트모더니스트들과 미래학자들이라고 지칭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니체를 시원으로 하이데거, 로티, 가다머, 푸코, 데리다 등을 통해 계승 전수되어온 탈근대주의자들은 21세기의 학문이 주관과 객관의 상호성, 이론과 실제, 인간과 자연의 합일 등을 기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21세기는 절대불변의 진리가 쉽게 발견될 수 없는 혼돈의 시대(The Age of Chaos) 혹은 상대성의 시대(The Age of Meta-Relativism)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들은 절대성의 추구라는 미명하에 억지 이성을 동원해온 근대라는 허구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지향점은 다양한 사상과 행동양식이 더불어 동일한 가치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 지평이다. 이 곳에서는 과학도, 철학도, 그리고 예술도 여러 가지 가치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이 글에서나 이들 탈근대주의자들의 문제제기는 20세기적 명제에 대한 반명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근대학문을 토양으로 엄청난 자금과 노력을 들여 우리가 찾고자 하던 절대 진리는 이들의 주장처럼 문화적 권위의 또다른 횡포였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이러한 [철학적 사조를 배경으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있어 탈근대학문의 아무로 분류될 수 있는 일군의 학자들을 같은 맥락에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1943년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오시프 플레이트하임이 ‘역사의 미래에의 확장’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래 그의 연구 명제나 방법론 등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오늘날 드러커, 토폴러, 벨, 네스빗 등과 로마클럽, 세계미래학회 등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다가와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독특한 시각으로 근대학문의 지평을 뛰어넘어 현상을 규명하고 예견하는가?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학문에서도 미래전망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대

답하기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가설을 근거로 설 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편성을 부여하여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 것이 근대가 요구 해온 학문의 기초가 아닌가.

하지만 미래학이 근대학문과 다른 중요한 것은 통찰(insightfulness)과 직관(intuition)의 활용이다. 이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로 지칭해도 무방한 것인데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풍부한 지식의 축적과 예감을 통해 미래의 시각으로 오늘을 조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이 강조하는 가장 큰 공통점은 앞으로는 변화의 정도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다. 우선 속도 면에서 변화주기가 현격히 짧아지고 있으며 이는 단위 시간당 변화의 폭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컨대 인간의 지능을 수천 배로 확대시켜줄 인공지능, 즉 '제5세대 컴퓨터' 개발과 유전공학 등의 과학기술 진보는 21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산업혁명과 종교개혁을 합친 것의 10 배 규모로 한 세대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또한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 측면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변화가 이루어지고 영역별 변화의 상호침투가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우에 따라선 새로운 영역 창출까지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컨대 시론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아테네 이후 사라진 직접민주주의를 부활시킬 수 있는 통신문민주주의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며 국가보다 강력한 다국적 기업의 대두는 드러커의 강조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다.

물론 주로 과학기술이라는 근대학문의 지표를 축으로 21 세기를 상징하는 이들 미래학자들의 분홍빛 미래상이 또다른 이데올로기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철학적 논의가 동시에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핵전쟁에 의한 지구의 멸절이나 환경파괴로 인한 증후군들, 지금도 대책없이 불어오는 폭발적인 인구문제 등

은 탈근대학문의 혁명적 수용이 없다면 세계는 조만간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

## 6. 맺으며

이제 세계는 루소의 문제제기와 네카르트의 완성, 그리고 미국의 실천으로 절정의 파고를 이루었던 近代를 이미 지나고 있다. 주지하듯이 새로운 지평의 구성은 문명사적으로는 탈근대, 지리문화(geoculture)적으로는 동아시아, 미래학적으로는 지식·정보사회 그리고 인류학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미래형 인간의 태동을 요체로 하고 있다.

한때 性通共明·在世理化·弘益人間 등 공동체 철학으로 동아시아 일원을 호령하였던 선조들의 광휘는 통일신라 이후 주변국으로 오도·전락되면서 지난 세월은 우리 한국인 모두에게 회한의 시대로 기억되고 있다. 이제 세계가 급격한 구조 전환기에 들어가고 있는 어수선한 지금, 우리는 끊어진 역사의 脈을 찾아 21세기 탈근대와의 적극적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민족공동체 구상은 물론 세계국가로의 발돋움을 꾀할 수 있는 질체질명의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한국인의 시대적 소명은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학문적 토양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비록 급격한 변화의 물결 때문에 역사가 더 이상 교훈을 줄 수 없을 지라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대의 흐름을 우선 통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변화의 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규명한 뒤 이에 대한 극복과 창조를 학문적 지평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절망 속에 배태된 희망을 볼 수 있는 직관과 지성적 견결함, 정치적 엄격함, 도덕적 섬세함을 고루 갖춘 21세기 한국과 한국인을 창조하기 위한 실천역량을 새로운 학문과 교육체계의 구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적 召命이다. ■